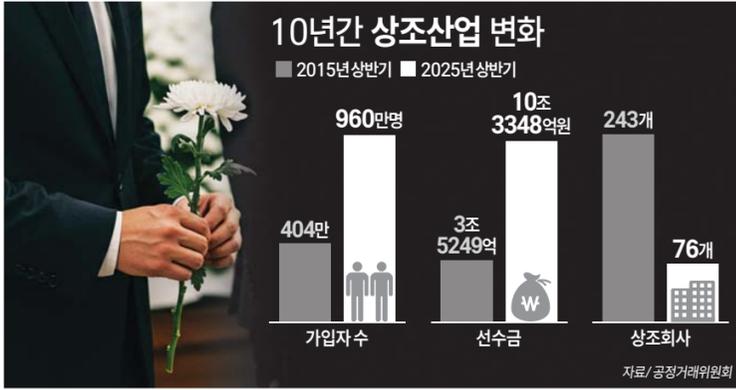


상조 1000만 시대... 10년새 가입자 2.4배·선수금 3배 '폭증'

상조산업 선수금 10조 훌쩍 넘어 관련사, 10년새 243→69곳 감소 퇴출·M&A 거치며 대형사 중심 전환 공정위, 제도 개선에 할부거래법 개편 가입조회·피해보상 통합플랫폼 추진 업계 "진흥 근거법 마련 필요" 촉구



상조산업이 가입자는 1000만명에 육박하고 선수금은 10조원이 훌쩍 넘는 등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10년새 70% 넘게 줄며 빠르게 재편됐다.

이런 가운데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고객 선수금을 쌓아둔 것으로 쓰는 것을 막는 등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또 '내상조 찾아줘' 온라인 서비스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5일 공정위와 상조업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당시 404만명이었던 상조상품 가입자는 2025년 상반기 현재 960만명으로 2.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선수금이 이 기간 3조5249억원에서 10조3348억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상조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건전성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 기간 243곳에서 69곳(선불식 할부거래법)으로 70% 넘게 감소했다. 부실기업 퇴출, 기업간 인수합병(M&A), 대형화·규모화 등이 주요 이유다. 69개사 중에선 상조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가 57개, 상조+여행이 12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는 2022년부터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면서 여행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 7곳을 더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갯수는 지난해에 총 76개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 ▲

사업자 책임경영 유도 ▲공제조합 감독 강화·사업자 법집행 강화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선수금 운용규제 강화의 경우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제한,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등이, 공제조합 감독 강화 등에는 공제조합 범위반 시설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마련, 영업정지 대상 사업자 금지행위 확대 등의 내용이 각각 포함돼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할부거래법 신규등록 제한 범위를 기존 '사업 등록 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에서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까지 확대했다. 또 관련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원칙,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지분매입을 위한 대출 금지 등 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조분야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상조 가입정보 조회, 피해보상 처리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도 빠르면 올해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가 구축해 놓은 온라인 플랫폼 '내상조 찾아줘'의 경우 검색 결과 나온 회사명을 선택하면 해당 회사가 아닌 공정위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등 반쪽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한때 업계내에서 제기됐던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이 아쉽다"면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회계기준을 바꾸고 상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주도한 관련 법에는 ▲상조산업 육성 기본 계획 ▲상조산업 분야 재정 지원 ▲상조서비스 선도기업 인증 ▲상조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에이스침대

'로얄에이스 100' 선공개 안락함·지지력 강조

롯데백 본점·잠실, 현대백 판교 팝업

에이스침대가 로얄에이스(Royal Ace)의 신규 최상위 모델 '로얄에이스 100'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24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3월12일까지 약 3주간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는 에이스침대 롯데백화점 본점(8층)과 잠실점(10층)의 더웨이브 행사장, 그리고 현대백화점 판교점 매장(8층) 등 프리미엄 리빙 수요가 집결된 수도권 핵심 거점 3곳에서 진행한다. 팝업 종료 후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9층)에서도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상설 전시를 한다.

선공개한 신제품 로얄에이스 100은 '최고의 가치, 가장 완벽한 밸런스'라는 수식어가 붙는 로얄에이스 시리즈의 최고 사양 제품이다. 하드와 소프트 사이의 균형 잡힌 탄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드러운 안락함과 탄탄한 지지력을 동시에 구현해 최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전문 매니저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 체형 및 수면 습관에 맞는 상담 및 체형을 경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 IP 경쟁력 드라이브... 등록·유지부담 낮춘다

중견연, 지재처장에 정책 10건 전달 최진식 회장 "지재권은 성장 성패좌우" 김처장 "IP혁신...현장 목소리 반영"

중견기업계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 지식재산 기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정책 10건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접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벤처,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면서 "지식재산권 승격의 취지와 확대된 역할에 걸맞도록 특허, 거래 시장 활성화 등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선 창의적인 정책 혁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견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대비 2배 이상의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 회장은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특허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체질 강화를 견인하는 데

민관의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특히 변화된 무역·통상 질서 아래 보다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과 선도적 위상 확보를 위해선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PPH) 협력국 확대 등 글로벌 지식재산 종합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사다리의 중심축인 중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 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이 지난 23일 서울 마포 중견연 사무실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접견하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 건의집을 전달하고 있다. /중견연

청호나이스

25평형 '서밋 타워' 선배 최저 18.4dB 저소음 구현

공기질 분석해 절전·쾌속 등 자동전환

청호나이스가 공기청정기 '서밋 타워'를 출시했다.

24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서밋 타워'는 83.2㎡(25평형) 공간에 적합한 제품으로, 입체적인 공기 순환과 스마트 제어 기술을 결합해 빠르고 균일한 청정 성능을 구현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과 저소음 설계를 바탕으로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청정 성능을 제공한다.

제품은 공기역학 설계를 기반으로 상단부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공기를 입체적으로 순환시키는 '에어리듬 모션'을 구현했다. 일반 공기청정기가 한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는 방식과 달리 상단 토출부가 움직이면서 바람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일반모드 대비 최대 5배 역동적인 기류 흐름을 형성해 공간 전반을 고르게 정화한다.

여기에 AI모드를 탑재해 사용자가 설정을 바꾸지 않아도 공기상태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했다. AI모드를 설정하면 실내 공기질과 주변 환경을 스스로 분석해 절전·쾌속·취침 모드로 알아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고효율 팬과 공기유로 구조 최적화 설계를 적용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과 최저 소음 18.4dB를 구현했다. /김승호 기자

세계은행과 '한국형 中企정책' 전수·확산 나선다

중진공, 피지서 합동 정책연수 축적된 경험·운영 노하우 공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세계은행(WB)과 한국형 중소기업 정책 모델 확산에 나선다.

중진공은 26일까지 피지에서 세계은행과 '중진공-세계은행 합동 정책연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수는 한국형 중소기업 정책을 전수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세계은행 관계자를 비롯해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24일(현지시간) 피지에서 진행된 중진공-세계은행 합동 정책연수 기념촬영 사진.

등 한국신탁기금 지원을 받은 5개국 중소기업 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기업 진단 기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자